

## 제5기 주니어보드, 주니어보드 출범 그 이후... 차세대 유통전문가를 꿈꾸다!

충북지원 주니어보드 회장 김희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다. 그냥 누군가 만들어줘서 덩그러니 놓여있는 주니어보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관의 미래를 짊어질 주니어보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지난 4월 「제5기 주니어보드 출범」 이후로 주니어보드 회원 10인은 많은 고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특특 튀는 아이디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틀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의 회장-부회장-기획부장-총무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주니어보드 회원 10인 모두가 발언권을 갖는 각자가 리더이며 회장은 단지 '주니어보드 호의키잡이' 역할을 할 뿐인 수평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모두가 리더라는 생각으로

회원이 아이디어를 제안  
하면 그것은 곧

“OOO의 프로젝트”가 되며, 프로젝트는 제안자의 주도 하에 기획되고 실행된다.

지난 6월 26~27일 개최한 '제5기 주니어보드 워크숍'은 주니어보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호선 대리의 프로젝트이다. 일명 “유호선 프로젝트”. 매년 주니어보드 워크숍이 개최되고는 있지만 내부적인 행사로만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가 필요했다. 우리 주니어들은 차세대 축산유통전문가가 되기 위한 생각의 틀 바꾸기 일환으로 유통전문기업과 함께 축산유통관련 포럼을 열자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였고, 여러 기업과의 조율 끝에 'AK PLAZA' 주니어계층 직원들과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워크숍은 기관 현안사항 알림, 원장님과의 대화, 상호 기업의 주력 사업에 대한 소개와 최근 이슈인 축산유통업계 소식공유, 그리고 각자의 기업문화 뽐내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워크숍의 마무리는 '축산물유통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이 토론시간은 우리 주니어들에게 정말 유익했고 약간은 충격적이기도 했다.

토론시간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불과 2시간 전에 'CEO와의 대화시간'에서 원장님이 우리 주니어들에게 당부하였던 말씀을 AK PLAZA 직원들이 똑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 소비자들의 하위 등급 비선호 경향에 대한 대책(숙성육 인증)마련, 부분육 품질 평가에 대한 내용 등 이미 유통업계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소비의 축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며 우리 품질평가원과 나아가서는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유통전문기업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상 무엇이든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직접적인 경쟁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주니어보드의 생각이 다른 각도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작지점에서의 각도가 단 1도만 바뀌어도 저 멀리 끝나는 지점에서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다른 기업과의 교류는 활발해야 할 것이며, 주니어들은 차세대 유통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제 5기 주니어보드 10인은 앞으로 20년 후에 축산업계를 주름잡는 자타공인 전문가가 되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5기 주니어보드 화이팅! **홍규정**

22  
23

